도교육청, 부안 서림고 지원 TF팀 가동

인사 · 시설 · 교육과정 지원 등 다각정 활동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가칭)서림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교원인사, 시설,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테스크포스팀은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도교육청과 지원청 장학사, 부안여상, 부안여중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가칭)서림고는 부안지역 여중학생들의 여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부안여상에 일반계 4개 학급을 신설하면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도교육청은 (가칭)서림고에 기숙사 신축(학습실, 동아리방 건립), 식생활관 신축, 강당 증축 및 리모델링, 본관 리모델링 등에 총4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또 지난 9월 인사에서 일반계열 학교의 경직을 가진 교장을 발령했으며 내년 3월 상업계열 교사의 전출 우선권과 일반계 고교 근무 경력 교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상담교사 1명과 원어민 교사 1명도 배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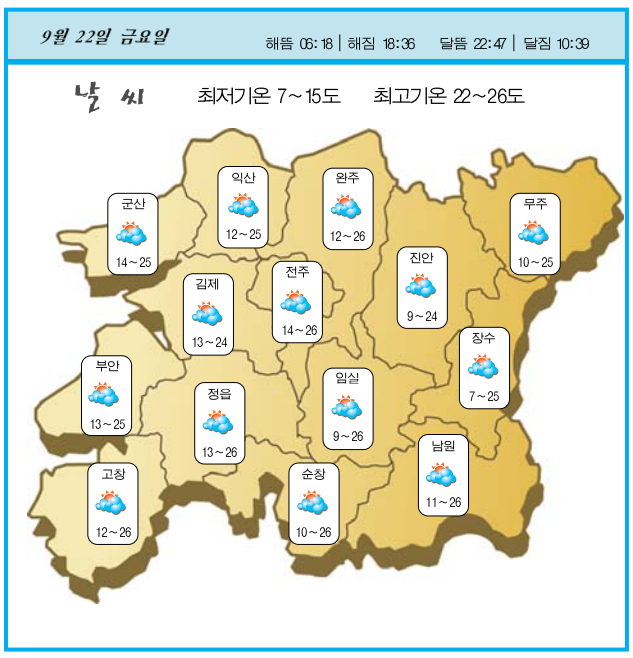
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도 도입된다.

문학 철학 역사 등을 배우는 인문학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고 진로진학 중점형 혁신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 또는 격주 단위로 영어회회와 제2외국어를 배우는 외국어 영역 거점학교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풍성한 한가위' 사랑의 송편 만들기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가 21일 추석을 앞두고 신성양로원(삼천동 소재) 등 1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송편 빚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대학교

CBNU 모험대사 10명 선발

대학 내 모험활동 프로그램 소개 · 확산 활동 도모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이 대학만의 인재 브랜드인 '모험생' 양성을 위해 모험 활동을 널리 알릴 제1기 CBNU 모험대사 10명을 선발했다.

CBNU 모험대사는 전북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선발, 운영하는 제도로 대학이 시행하는 다양한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교내외에 확산시키는 첨병 역할을 맡는다.

송태요 학생(신문방송 4년)을 비롯한 10명의 학생은 19일 이남호 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모험대사들은 학술과 저술, 해외 모험활동, 각종 공모전, 대외 봉사활동, 창업 등에서 남다른 경험과 탁월성을 지닌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활동 경험을 알리고 모험 토크콘서트와 모험 상담소, 블로그 운영, 모험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 대학 내 모험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펼친다.

송태요 학생(CBNU 모험대사 대표)은 "우리 대학 최초이자 전국 대학에서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모험대사에 선발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인재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총장은 "모험대사는 우리 대학 개교 70년 이래 처음인 만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모든 전대인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스스로 일을 찾아 창의적으로 해내는 인재, 자신만의 '스토리가' 풍부한 인재, 포용력을 갖고 타인과 융화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선도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개교70주년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개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가 익산 특성화캠퍼스를 알리고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교 70주년 기념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23일 오후 1시부터 익산 특성화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위한 본행사와 함께 각종 부스가 상시적으로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문에서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신명나는 풍물 연주가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본 행사로 반려동물 장기자랑과 개·고양이 행동학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열린다.

또한 반려견 보호자와 함께하는 동물올림픽을 비롯해 동물 상식을 알 수 있는 QX 퀴즈 등이 이어지고, 시상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수여된다.

특히 상시 행사로 마련되는 부스에서는 체험과 전시가 다채롭게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전북대 동물의료센터 의료진들이 직접 나와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기견 무료 분양, 무료 애견 미용 부스도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일일 수의사 체험과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솜사탕 등의 부스가 마련되고 일일 카페에서는 커피 등의 음료와 다과가 제공된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는 무료로 가족사진도 촬영해 준다.

강형섭 수의대학장은 "지역민과 반려동물을 통해 어우러지고 소통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 등을 널리 알리고 대학과 지역민들이 하나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북-강원 중등 수석교사 합동 워크숍

전북과 강원의 중등 수석교사들이 22~23일 전북에서 합동 워크숍을 연다.

두 지역 중등 수석교사 70여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타 시도 수석교사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수석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수석교사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은 22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수석교사의 역할 재고(박승자 이리여고) ▲수석교사로 살아가기(원소연 화천중) ▲수석교사의 진로(김용수 솔빛중) ▲단위학교 수업 개선(최인숙 원주여고) 등에 대한 사례발표와 수업컨설팅이 진행된다.

이어 전주한옥마을에서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한옥마을 골목길 투어에 나선 뒤 저녁식사 후에는 송봉금 소리꾼으로부터 '국악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을 듣는다.

수석교사들은 이튿날인 23일에는 부안으로 이동해 새만금과 신재생에너지관 등에서 답사활동을 한 뒤 소감 나누기를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합동 워크숍을 마무리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강원지역 중등 수석교사 교류 합동워크숍은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초청으로 처음 진행했고 올해는 전북교육청 초청으로 두 번째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면서 "타시도 수석교사들과의 수업사례 공유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수석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 설명회를 갖고 확산에 나선다.

오는 28일 오후 2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교협동조합 설명회에는 안수정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국장이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또 길영균 전라중 교장이 '생그레(전라중 사회적협동조합)', 임수영 장학사가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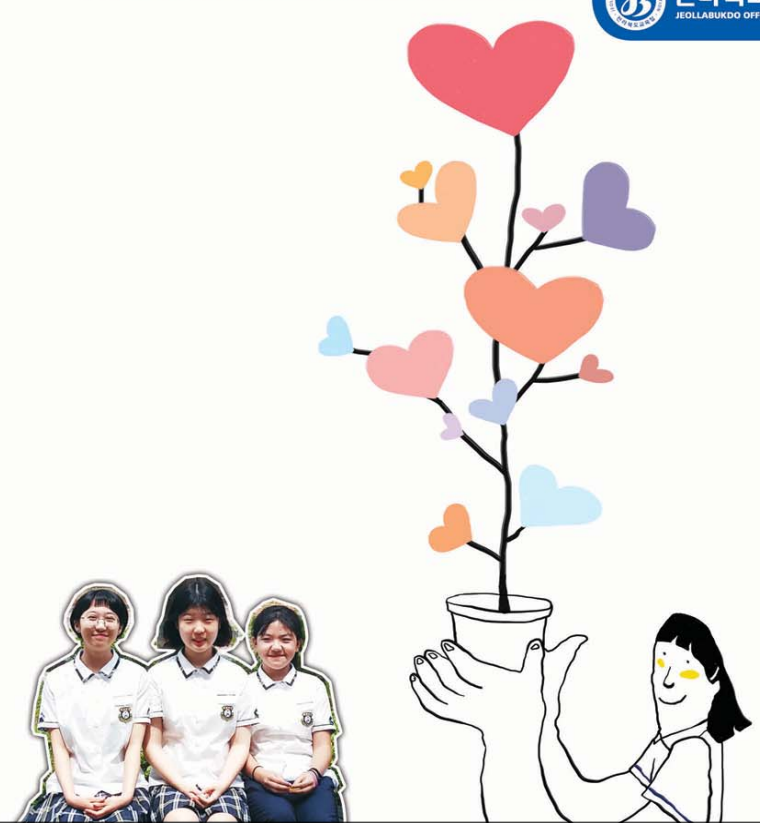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